

SERMON PENTECOST 2016

Genesis 11:1-9, Acts 2:1-21

바람처럼 보이지 않고 비둘기 같이 부드러운신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믿도록 도와주시며, 구세주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순절. 교회의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입니다.

종종 교회의 탄생일 이라고도 불려지고 케익, 초, 색 테이프, 풍선과 함께 축하합니다. 오순절 이름은 50 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로부터 왔으며, 부활절 50 일 후를 가르쳐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축제의 기간이라고도 불리어 집니다, 오순절은 밀 수확을 거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려지는 절기인 동시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수여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70 방언의 불로 나누어졌습니다, 각각의 성령은 그들이 아는 나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축제의 때입니다.

오순절, 그 놀라운 사건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 그것이 온 집에 가득 차고 그것은 혀의 불과 같다고 묘사되었습니다. 누가의 독자들은 상징주의라고 인정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초기 기독교 운동을

통해서 내려오며 기념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행사로부터 벗어나서, 누가는 그의 독자들이 이 사건이 어떻게 바벨탑의 이야기에 일어난 것과 연결되는가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부터 온 사람들에게 관해서 들음으로 그 암시를 인정했었을 것 입니다, 더 이상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갈라지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축제기간에 함께 모여서 이해함으로 연합되었습니다. 근본적인 처벌을 위한 인간의 자부심과 욕망은 바벨탑 건설하는 능력과 상반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방언을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이 일어났었을 때, 쉽게 알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일어난 것은 거기에 있던 각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언어, 그들의 자신의 언어를 발견했습니다. 연합과 소속감의 아름다움과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통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부족으로 또는 대화하기에 무능해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권한을 주시고,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경계나 한계가 없는, 무리 안에 있거나 소외되지 않은 임재에 관한 것입니다. 그 전에 불분명했던 베드로는 오래 전 요엘에 의해 예언된 연결성을 봄으로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물론 예수는 높은 곳에서 내려와 유대인들 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역시 오셨다는 사실에 고심해야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의 꿈에 고넬리우스와 연락한 것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오순절의 하이라이트는 그것이었습니다, 이 장엄한 사건은 모든 것을 변화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의미는 진화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이 경험의 산 위에 남아있도록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높은 전망에서부터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영감을 받고 능력을 부여 받고 -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서로서로와 함께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에 급하고 강한 바람을 기대하시거나 또는 방언의 불이 우리 머리들 위에 임하고 갑자기 우리모두가 한국어와 영어를 말할 수 있다면 하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삶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적혀있는 초대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마 우리는 더 넓은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누가 오랜 그들의 신앙의 전통으로부터 알아온 그의 독자들과 연결된 것 같이 말입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제일 처음은 사람들이 어떻게 창조 되었는지 이야기 합니다; 어떻게 사물들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생명이 시작되었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시적 언어입니다. 창세기 1 장 2 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은 눈을 감고 흑암이 수면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이 있었을 때까지 성령이 계속 운행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 천년 전,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땅, 바다, 하늘, 요소들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 보다 더 큰 하나님의 것, 신비, 능력 그리고 또한 자비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디 있으며, 얼마만큼 우리는 멈춰야 합니까 우리 인간이 건설한 기계화와 함께 힘든 경계의 이상의 소리를 듣고 있나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그것을 약간은 경험 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가능하면 멈추어서 들을 수 있는 성스러운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수 있나요, 아마, 이것이 우리가 또한 보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 인가요, 인간 개입의 항목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많은 창조의 표시, 상상력, 그리고 인간의 손과 마음들이 작용하는 결과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그것 모두가 우리들 자신의 것이기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아마 우리는 모든 재능의 원천, 미술, 음악, 시 그리고 더 많은 종류들에 대해 멈추고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히브리어에서 영은 여성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루하흐", 문자 그대로 "호흡"이고 우리가 그것을 말할 때 호흡처럼 들립니다. 그것은 우리를 상기 시킵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또한 우리 주위를 운행합니다. 그것은 광포하고 가까우며, 부드럽고 활력을 주고, 폭풍우 몰아치는 때, 땅이 움직이는 힘, 또는 잔잔한 작은 목소리, 이 모든 것이 엘리사가 그의 삶의 두려움으로부터 도망했을 때 동굴에 숨어서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소리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성령은 광야에서 길을 잃은 유대인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과 신앙의 투쟁으로부터 오는 델 수 없도록 엮어져 있습니다. 수 세기 동안 어떤 것이 정말 나빠 질 때,

성령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서막에서는 그것을 묘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매주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역, 그의 가르침, 연약한자와 억압 받는자를 돌보시고, 소외자들과 함께 그의 삶을 나누고, 조롱 당하고 그리고 거부 당한 자 들에게 그 자신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영이 예수에게 거하시고 그를 사막으로 인도하셔서 시험을 감당하고 그가 그 자신 안에 필요한 영을 발견할 때까지 자기성찰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순절과, 성금요일, 부활토요일과 그리고 부활 새로운 삶이 불가능해 보이는 새로운 삶의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다시 알려지는 것을 들었고 또 보았습니다, 그들의 부적합함과 괴로움에도 그들을 재 확인 하였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 우리는 그가 어떻게 그들을 떠났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을 보내셨고, 그가 약속한 것처럼 그 성령은 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MALCOLM GUIE PENTECOST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날개 아래 바람을 느낍니다

오늘 숨겨진 분수가 계속 흐릅니다.

오늘 교회는 마지막 호흡을 하며 노래 합니다.

모든 불꽃이 찬양의 혀가 되므로.

이것은 불과 공기와 물의 축제입니다.

쏟아져 나오고 숨을 들이 마시고 지구에 타기 시작합니다.

지구 자신은 그녀의 창조주를 깨웁니다.

그리고 죽음에서부터 삶으로 전환됩니다.

옳은 말씀은 오늘 옳은 순서로 옵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은 자유와 해방을 말합니다

오늘 복음은 모든 경계를 뛰어 넘습니다

모든 방언들은 평화의 왕에 의해서 완화됩니다.

오늘 잃어 버린자들은 그의 전환을 발견합니다,

모든 나라 방언의 모국어는 사랑입니다.

여기 우리는 변함없이 임재하시는 영이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 초대 받았습니다. 우리는 폭풍우 바람 또는 불의 허는 필요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시고, 세상을 창조 후 계속 일하셨습니다.

성령은 항상 거기에 계셨으며, 바람의 자유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에 움직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연결합니다, 우리가 세운 경계의 벽들을 종종 알아채지 못하게 무너뜨립니다.

사랑은 우리가 대화하도록 돕습니다, 단지 우리의 비슷한 점을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다른 점들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연합 시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주전에 말씀 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다름을 창조 하셨습니다.

오순절의 이야기는 놀라운 성령의 활동을 통해 깨뜨립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새로운 공동체는 생명을 주었습니다. 2000년 후, 여기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오직 이렇게 존재합니다. 예, 변화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아마 많은 아이들, 젊은이들, 가족들로 교회가 가득 찼었던 날들의 향수를 가지고 뒤를 돌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를 둘러봅니다, 크레인이 탑을 건설하고 하늘을 잡으려고 도달하려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아마 많은 압력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서로서로 갈라놓을 수 있으며 우리가 서로를 이해 하고 듣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어 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갑자기 포기 했다고 믿는가요?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고 기억합시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성령의 인도와 안내, 지도와 회복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를 보고 기억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것은 사랑, 치유, 평화, 그리고 정의를 외치던 땅에 묻던 것의 돌파구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고 우리는 큰 기적들이 필요 없지만 친절한

작은 행동들과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위를 보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고, 비둘기처럼 부드럽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믿도록 도와주시고, 구세주의 사랑을 보여 주십니다.